

# 'SSM' 여수 입점 사실상 어렵다

〈기업형 슈퍼마켓〉

## 시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조례 개정안 의결 1km이내 입점 제한 지켜질때 골목 상권 보호 효과

여수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 입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 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3년 기한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L쇼핑이 시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한 데 반발,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내용은 종전 전통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적용 시한도 2013년 11월(3년)에서 2015년 11월(5년)로 2년 연장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여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전창곤(국민참여당)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에는 SSM이 3곳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문수동 입점이 추진되자 상인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순천 녹색 교통수단 자전거 교실 운영**  
순천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주과정으로 자전거의 구조와 주행실습, 교통법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제공)

## 여수 박람회 기념품 온라인 판매

**오픈마켓 '11번가' 후원사 선정**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품을 살 수 있게 된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11번가(사장 이준성)를 공식 온라인쇼핑몰 후원사로 선정, 지난 22일 여수 조직위 사무실에서 후원사 협약을 가졌다.

11번가는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 온라인쇼핑몰을 오는 9월말에 오픈하고, 박람회 기념품을 본격적으로 판매 예정이다. 11번가는 "수준 높은 온라인 쇼핑 서비스와 함께 엑스포 기념품에 대한 11번가 전문 MD들의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곡성 체육공원에 참전용사 기념탑

곡성군 체육공원에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참전용사 기념탑'이 세워졌다. 곡성군은 지난 22일 허남석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향군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기념탑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탑에는 참전용사 2491명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탑에 조형물인 '평화의 알'은 지속적인 평화의 확산을 나타내며, 주탑 좌우의 6개 상징조각은 참전용사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창공을 나는 비둘기 때는 평화의 영속성을 상징한다. 김재은 추진위원장은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며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보훈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은 지난 22일 체육공원에서 허남석 군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 기념탑 제막식을 가졌다. (곡성군 제공)

## 어린이 철강 과학캠프 광양제철소 30일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준식)는 여름방학을 맞아 25일부터 30일까지 하동·남해·광양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 19회 POSCO 어린이 철강 과학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 320여명이 참석했다. 캠프 첫째 날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고 캠프장으로 이동, '모듬별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천문대 과학체험을 통해 별자리를 관찰하며, 미래과학 꿈나무를 위한 생활과학을 풀어가는 시간으로 채운다. 또 셋째 날에는 로봇발사 실험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세 얼굴 "투자유치 통해 희망의 고흥 건설"

**송자섭 고흥군수**

"38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 접암 출신인 송부군은 동신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74년 고흥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청 도로교통과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관리부장,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류양희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 전 북

##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 개통



부안군 대항리에서 가덕도를 잇는 새만금 1호 방조제도로 개통식이 지난 22일 현지에서 열렸다. 모든 구간의 차량운행은 시속 70km로 제한되며 무게가 43t을 넘는 화물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연합뉴스)

## 진안군 공무원들 공금 멋대로 사용

### 보건 진료소장, 운영기금 수천만원 생활비로 도 감사서 적발... 71명 문책·94억원 회수

진안군 공무원들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장학기금 모금을 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을 감사해 8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명을 징징계하는 등 총 71명을 문책하고 잘못 지출된 94억원을 회수 또는 감액했다. 감사결과 진안군 A 보건소 B 진료소장은 최근 3년간 자신이 일하는 보건진료소 운영기금 총 1924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다 적발돼 징징계를 받았다. 다른 기능직 1명은 동료 몫의 여비 100여만 원으로 명절 선물을 구매해 지인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군 공무원들이 지난 1998년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임원을 겸직하면서 신용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신용사업장을 설립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지만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해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금융업을 하는 사업장의 임원을 겸직중인 것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면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는 현 임원진을 전원 사퇴시키고 민간인으로 새로 구성하라고 진안군에 통보했다. 게다가 진안군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 2명을 관련법을 어기고 승진시켰으며, 기능직을 채용하면서 부적절한 면접관을 통해 1급 자격증 소지자는 탈락시키고 3급 자격증 소지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군은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를 감안해 인력 충원에 신중해야 함에도 민선 4기 이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총 187명을 채용했다. 이밖에 도 진안군 출연기관인 장학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돼 있음에도 출반식과 읍·면 설명회를 열어 1억4000여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예비 사회적 기업 내달 8일까지 공모

전북도는 8월 8일까지 제2차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전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 또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인건비, 판로 개척,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모 자격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으로, 실태조사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전북도 창업지원과나 경제통상진흥원 또는 각 시·군에서 받는다.

/동부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천 물놀이장 내달 21일까지 무료 개방

정읍시는 시내를 흐르는 자연 하천인 '정읍천'에 물놀이장을 꾸려 8월 21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물놀이장은 내장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을 이용해 시가지 동정동 교하류에 조성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평일에 최대 5000여명, 휴일에 2000여명이 이용했다. 물놀이장(3860㎡)에는 무릎깊이의 어린이 수영장 2곳, 물 썰매 슬라이드 2조, 인공폭포 3개, 마사지폭포 3개와 탈의실, 그늘막 시설, 평상, 휴식용 대형깔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야간에는 다리에 설치된 경관 조명이 멋진 풍경을 연출해 밤 피서지로도 이용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js@

## 남원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될까

### 환경분야 최고 '리브컴 어워즈' 최종 본선 진출

남원시가 환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대회인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의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 환경계획(UNEP)이 인정한 세계 유일의 환경 관련상이며 '그린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다. 1997년부터 지구환경보호에 이바지한 도시에 수여되는 리브컴 어워즈는 ▲살기 좋은 도시상 ▲우수사업 장려상 ▲프로젝트 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400여개 도시가 예선에 참가해 60여개 도시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남원시는 국제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 7만5000~15만명 도시 중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08년 '국가환경경쟁대상'과 2009년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 2010년 '생생도시·그린시티' 선정 등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군산 어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반대"

군산지역 어민은 "대체어장을 만들지 않고 강행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 수협 어촌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새만금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체어장 개발 계획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체어장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항만 건설로 어업이 전면 금지된 만큼 항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체어장 개발과 함께 신항만 건설에 대한 어민 공청회 실시를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부안 양파농가, 2만t 생산 71억원 소득

양파가 부안의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안군은 올해 824 농가가 388ha 면적에서 양파 2만t을 생산해 7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들 농가가 생산한 양파는 kg당 650원에 계약 수매한 농업협과 유통센터를 거쳐 전국으로 판매된다. 이처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돼 재배면적도 매년 늘어 2009년 164ha, 2010년 174ha에서 올해는 388ha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위도 해상서 어선 전북 4명 구조·1명 사망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어선이 전북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구조됐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4.5km 해상에서 군산선적 새우잡이 어선 풍양호(7.93t·승선원 5명)가 전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은 조난사고를 받고 10여분 만에 함정과 헬기를 현장에 파견해 김 선장 등 2명을 해상에서 먼저 구조하고, 선실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송기열(57)씨 등 선원 2명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주대 스타센터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교내 스타센터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했다.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232㎡ 규모로 원어인 강사가 배치돼 영어 토론과 독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영어를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된다. 아동용 영어책 2만여권도 갖추었다. 화원제로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에 '무궁화 테마식물원'

완주군은 고산면 고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만들었다. 식물원은 58여원이 투입돼 11만3000㎡ 부지에 들어섰으며 무궁화 동산과 세계 나라꽃 전시관 등을 갖추었다. 세계 나라꽃 전시장에는 일본 나라꽃인 벚꽃과 불가리아 나라꽃인 장미, 스리랑카 나라꽃인 연꽃 등 각국의 나라꽃을 전시한다. 완주군은 무궁화 테마식물원에서 다음달 8~15일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